

“籬一聲樓”所藏書畫類 도난사태에 대한 기술

적일성루는 경남 사천군 곤양면 환덕리 소재 함안조씨 덕공공파 자손인 故 趙聖來家의 사랑채 별칭인데, 19세기 전반 향촌사회에 이름을 알린 환덕 威安趙氏家를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이다.

사랑채인 이 건물을 포함하여 조씨의 목조 건축물들은 그 구조가 조선 목조건축의 지역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여 지방문화자료로 등록되어 관리된다.

조씨는 구한말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중소지주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런 우월한 경제적 배경 아래 지역 여론을 무마, 조정하였으며 지역민들과의 유대를 긴밀하게 다져 지역의 이해 충돌, 즉 현안 해결을 선도하였다. 그 경제적, 사회적 기반으로 당시 영남 주류 가문과 通婚을 넓혀 인적 자산을 비축하여 가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세웠다.

家勢를 強化하려는 의도에서 자녀교육에 공을 들이고 당대 일류 문사들과의 교류를 터고 서적을 널리 수집하고 문사들을 禮遇하자 이집 사랑채는 一技를 구비한 인물들이 成市를 이루었다고 한다.

예컨대, 화가, 서예가, 판소리꾼, 재담가, 승려, 풍수 명리가 등등 다양한 技藝人들과 過客들이 상시 留宿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다. 이러한 문화 사회적 환경은 이 가문 서고의 장서를 풍부하게 만들었고 格調 있는 서화류까지 모이게 되었다.

故 趙聖來甫가 생존시 관직에서 물러나면 그 문헌과 서화품을 전통시대연구에 활용하고자 장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일차 결과가 “적일성루소장장서목록집”으로 나타났다. 그 조사를 통하여 보관방법과 소장 자료 분석에 착수하가 직전 중요 書籍<韓籍>과 회화가 도난당하는 참

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고인께서는 문헌과 그림에 높은 鑑識眼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셨으며 이들을 한낱 개인의 재물로 보지 않고 고전문화연구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도 제공하고 본인도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지니고 계셨다.

귀중한 우리의 문헌을 생활수단으로 이용하는 철없는 거간꾼들의 더러운 손길 때문에 그 꿈도 자료도 사라지게 되었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특히 서화류의 경우는 서고 상단 시렁<칸>에 신문지로 들들 말아 둔 묶음 12개를 확인하였다. 목록조사 당시는 서고 문헌정리가 일차 목표라 서화 내용물은 일일이 펼쳐보고 확인하지 못하고 다만 갯수만 헤아린 뒤 먼지를 털어 그대로 보관하였다.

전통시대 서화의 경우 화가가 그림을 그려줄 때 그 증여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제에 기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籒一聲樓 도난 서화도 그 題書를 확인하면 그 소유문제가 대부분 가려질 걸로 판단한다. 조씨가에서 보관한 서화가 協業作이 더러 보이고 그리고 題書에 그려주는 사람과 수령자와의 관계가 상세히 기록된 작품이 여러 점 발견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籒一聲樓란 篇額은 秋史 金正喜가 이 가문에 써 준 것이라고 한다.